금주의 법구-〈시가라위경〉
우리의 목숨은 무상하고
인생은 잠깐이다.
부지런히 닦아 불멸의 곳으로 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2월 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29호 2017년 1월 1일 일요일



정유(丁酉)년 새해, 원효의 이름을 새기며… 아침을 잉태한 새벽은 불법(佛法)을 품은 시간이다. 어둠과 밝음, 시작과 끝, 생과 멸을 하나로 품었다. 오늘 아침 역시 그 새벽을 지나 우리 곁에 왔다. 가르침으로 받아야 할 시간이다. 원효 스님이 개산한 것으로 전해진 여주 신륵사 마당 끝으로 적정의 시간을 지나온 새해 첫 햇살이 다가온다. 올해는 원효 스님이 이 땅에 오신지 1400년이 된다. 원효(元曉)는 '불교를 처음 빛나게 했다'는 뜻이며, 당시에는 스님을 '새벽(始旦)'이라 불렀다. 우리에게 새벽인 스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다면 올 한 해는 분명 값진 해가 될 것이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원효 · 결사 · 백일법문 불교 지평 넓힐 키워드

키워드로 본 2017 한국불교

정유년(丁酉年) 새해는 불교계에 여러 의미가 있는 해이다. 화쟁국사로 숭앙받는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이자 현재 한국불교의 기틀을 만든 봉암사 결사 70주년을 맞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종교지도자인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을 설한지 꼭 반세기를 맞는다.

원효 스님 탄신 1400년

가장 눈길이 가는 기념행사는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한 · 중 · 일 3개국을 순환하며 원효 스님의 저술과 사상을 살펴보는 대규모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먼저, 3월 23~24일 중국 인민대학서 '원효와 동아시아불교'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시작하며, 5월 19~20일에는 동국대 주최로 14명의 세계 학자가 참여하는 '21세기 원효학의 의미와 전망-원효 찬술 문헌의 계보학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한다.

6월 24일 열리는 동국대 HK연구단, 가나자와문고 공동 세미나는 원효 스님을 일본에 알리기 위한 공동 전시를 기념하는 행사다. 두 단체가 여는 공동 전시는 일본 소재 한국불교 사본 전시하는 기획으로 꾸며진다. '원효와 신라 · 고려 불교'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는 6월 23일~8월 17일 일본 가나가와현 현립 가나자와문고에서 진행한다.

동국대 HK연구단 주최 3~6월
韓中日 3국 학자 '원효'로 만나
한국불교학회, 원효 논문 공모
성철 스님 백일법문 50주년 맞아
'중도 사상' 주제 포럼 출범 계획

이 같이 '원효 스님'을 주제로 한 · 중 · 일 3국을 순환하는 대형 학술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원효 스님에 대한 학술적 논의 범위를 동아시아로 확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종욱 동국대 HK연구단장은 "원효 스님 관련 저작과 문헌을 총체적으로 살피고 이에 대한 연구를 점검하는 것은 동아시아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각의 원효 스님 관련 논문을 공모 중이다. 논문 선정은 3월 31일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4월 중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수상 논문들이 발표된다.

한국불교학회 법인 이사 종호 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은 구랍 12월 19일 열린 학회 동계 워크숍에서 1년 사업 계획을 밝히며 "논문 공모는 그간 원효 스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해가 담긴 연구 논문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모 취지를 설명했다.

봉암사 결사 70년 · 백일법문 50년

근현대 선지식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불교 기틀을 만들었던 봉암사 결사 70주년을 맞아서는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와 백련불교문화재단이 올해 하반기 봉암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조계종단 차원의 기념행사는 현재까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철 스님이 1967년 동안거에 설한 백일법문 50주년을 맞아서는 새로운 형태의 포럼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불교인재원은 백일법문 상시 강좌와 더불어 성철 스님의 강조한 '중도 사상'을 세상에 알리고 구현하기 위해 '백일법문 중도 포럼(가칭)'을 출범할 예정이다.

'백일법문 중도 포럼'은 한국 사회에 산재한 갈등을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중도'로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이사는 "올해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도포럼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도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통해 현재 직면한 한국사회의 문제에 대한 중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포럼의 성격이 강하다"며 "재가불자들을 중심으로 전문 역량을 모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버마어'로 피어난 법정 스님 동화책

(사)맑고향기롭게, 〈슬기로운 동화나라〉 등 2천권
미얀마 현지 도서관 · 교육기관 등 450곳 무료배포



故법정 스님이 2003년 펴낸 동화책 〈슬기로운 동화나라〉가 버마어로 번역돼 미얀마 아이들에게 전해졌다.

시민모임 (사)맑고향기롭게(이사장 덕일)는 버마 어린이 · 청소년 지원단체인 따비에(버마대표 마웅저 · 한국대표 정보임)와 함께 최근 한국동화책을 버마어로 번역 · 출간해 미얀마에 무료 배포했다.

이번에 출간한 책은 법정 스님의 동화책 〈슬기로운 동화나라〉1~3권 중 미얀마 어린이와 공유할 수 있는 5개 이야기 △자비로운 노스님 △어리석은 부자 △지혜주머니 이야기 △머리가 두 개 달린 새 △노인을 버리는 나라를 묶은 것과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로 각 1000권씩 미얀마 현지 도서관 및 교육기관(국립 및 마을도서관 · 에이즈센터 · 한센병센터 · 학교 등) 450곳에 전달된다.

버마어 번역출판사업은 (사)맑고향기롭게가 길상사 경내서 환경운동으로 펼치는 '녹색나눔장터' 수익금으로 진행한 데 의의가 있다. 또 '무소유'를 강조한 법정 스님의 동화책이 출판의 자유가 제한된 미얀마 어린이들에게 전해져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다는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마웅저 따비에 버마대표와 카이몬 사무국장이 번역작업을 시작해 9월 초 인쇄 및 제본작업을 완료했다. 10월부터 도서관을 비롯한 각 기관에 무료 배포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80%가량 보급됐다. 〈슬기로운 동화나라〉 잔여분은 1월 중 분쟁지역 및 태국-미얀마 국경지대에 있는 어린이 교육기관에 전달되며, 현재 번역작업이 끝난 〈어린왕자〉도 함께 배포된다.

(사)맑고향기롭게 이사장 덕일 스님은 "모임이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 얻은 순수 수익금을 모아 버마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말로써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법정 스님의 뜻을 기리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사업으로 번역된 책이 버마 어린이들에게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도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따비에'는 미얀마에서 평화와 행복, 안녕을 상징하는 나무 이름이다. 현지서는 이 나뭇잎을 '따비에 꽃'이라 부르며, 각종 행사서 따비에 나뭇가지를 잡고 기원을 올린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7년 신년특집호 - 52면 발행

A 특집 · 종교 간 대화- 법현 스님 · 바르트 교수 5
특집 · 각 종단 신년 법어 8·9·10
특집 · 이젠 생활밀착형 불교 12·13·14
특집 · 지상법석-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 16·17

B 특집 · 결사, 한국불교 변화의 원력 1·2·3·5
특집 · 원효를 말하다 8
특집 · 불교와 닭 15
특집 · 신임 신행단체장의 새해 다짐 19

자비광명이 충만한 복된 새해 되십시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